

#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은 마음으로 고쳐야 합니다

## 25면에서 계속

지 못하고 찢찢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지독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까? 인간은 인간대로 그렇지만 저 달이나 개, 이런 모든 동물들을 보셔요. 그게 지옥이지 판 게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 때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오산이죠. 이 중세기에 상세계도 있고 하세계도 있고, 지옥도 여기 있고 천당도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될 때에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형제가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한 개체인 인간이예요. 인간이 아니죠.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평등공평으로서 지금 현재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탐내고 무엇을 욕심내며 무엇에 그렇게 착을 두고 그렇게 애절복절하고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끌어 잡아당기면서 애틀 쓰느니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 고가 없다.' 한 뜻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걸어오실 때 뒷발자취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그 도리를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듯이 모두가 공하고 또 모두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본 것만 그대로 보고 있으렵니까? 한번 들었던 것 하나만 듣고 여직껏 사셨습니까? 한 군데만 가고 여직껏 사셨습니까? 한 사람만 만나고 여직껏 사셨습니까? 일거수 일투족 전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보면 본 것이 사라지고 또 보게 되고, 들으면 들은 것이 없어지고 또 듣게 되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냥 자동차가 막 달리는 데 말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뿐이지 과거는 없다 이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어요. 자꾸자꾸 지나가니까, 앞으로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그 자동차가 갈 뿐이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갈 뿐이죠. 아래 위도 없이 그냥 갈 뿐이예요. 그 도리를 알면 지금 생각했던 거는 다 달아나가고... 이만한 덩어리의 문제가 생겨서 아주 애절복절 생각을 했더라도

그게 달아나는 거죠. 그 이튿날 또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하더라도 이미 앞서 생각한 건 달아나간 겁니다. 또 생각해도 또 달아나갔고 또 생각해도 또 달아나갔고, 달아나갔다 보면 그 덩어리가 다 달아나가고 말아 버려요. 그러니 고도 없고 업도 없고.

여러분한테 유전성과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주둔하고 있죠. 말을 하려면 또 조금 길어질 테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가지고 자기가 형성돼서 태어날 때 바로 부속의 인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유전성이 거기 섞여 입력이 돼서 왔느냐, 영계성이 유전이 돼서 오게 됐느냐, 또는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인과성이나, 이런 것이 사람마다 어떻게 들어 있는 줄은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는 누가 뺏아 갈 수도 없고 누가 없앨 수도 없어서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전부 그렇게 나오는 거를 거기가 되맡겨 놓으면 그 세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앞서의 그 모든 유전성의 입력 또는 영계성의 입력, 또는 세균성의 입력 인과성의 입력, 업보성의 입력 이 모두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아 버린다 이 소립니다. 좀 안다고 거만하게 '내가 이만하면 됐는데...' 하고 목을 뺏뺏이 한다면 이거는 영원히 공부 못 하는 일입니다. 어디고 같이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길을 가는데 개재판 놈이 나와서 길 가운데에 앞발을 들었고 요렇게 버티고 섰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아하! 이렇게구나. 자기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환경이 아니라면 모두가 저항력을 느끼겠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돼지를 건지려면 내가 돼지가 돼 줘야 하느니라 하셨던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글썽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앞발을 들고 나서 봤자 뭘을 하겠습니까마는 저항력을 느끼고 땀비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에도 벌레 먹은 고목나무하며 천차만별로 다양한 생명들이 있어서 그것이 한데 합치니까 바로 뫼 산(山) 자를 썼지 그렇지 않으면

둥글게 뫼 산 자를 안 썼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죠. 모르더라도 '내가 모르던 때의 모습으로구나.' 하고 '내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친근하고 모두가 형제 같고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고정됨이 없다는 거, 우리 살아가는 게 찰나찰나 그대로 고정됨이 없이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그 도리를 알면 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아라. 그 도리를 알면 전체가 네 것 아님이 없고 네가 아니 하는 게 없느니라.' 한 겁니다.

예를 써서 가는 거 잡으려고 욕심 많게 그러다가 중간에 건너지기도 못하고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지요. 차가 지나간 자취가 없듯이 사람의 발자국도 떼어 놓는 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세상살이가 다 그러하니까 그 도리를 안다면 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고가 있을 리가 있나요? 죽는 것도 겁 안 나고

### 우리 살아가는 게 찰나찰나 그대로 고정됨이 없이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그 도리를 안다면 묶음은 없다

사는 것도 뭐 그렇게 겁 안 나고 하늘이 무너져 꺼져서 가루가 된다 해도 겁 안 나고, 아무 것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를 버리면 겁이 나는 게 없고, 아니 되는 게 없고, 다 대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정에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꽃 하나도 내가 좋아하면 잘 피어 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시들시들하고 썩질 않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은 남한테 그저 둥글둥글하게 항상 모가 안 나게 사십시오. 그러려면 모두가, 날아가는 새들도, 산에 핀 꽃들도,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잎새 하나하나도 전부 여러분의 손이 되고 발이 돼 줄 것입니다.

오늘 경중경중 뭐다 보니까 그저 할 말을 다 못한 것 같지만 말로 다 어찌 하리까? 말로 하는 게 아니니 바로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빛보다 더 빠르고 한생각이면 전체를 감응할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뜻을 잘 아셔야 하실 겁니다. 또 삼천 년 전에 부처님이 열반 하셨다고, 지금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

분이 한 명만이라도 살아 있다면, 풀 한 포기라도 살아 있다면 그 부처님의 마음은 바로 현실에 계신 겁니다.

그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선지식이, 수만 명이 깨쳤어도 일 불이 지 때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 불(萬佛)이 일 불(一佛)이고 일 불이 만 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았고 그 육체를 불살라 가면서 얼마나 힘든 걸음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때로는 감출 수가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먹물옷 입은 것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나는 좋아하는데 모두들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사람이 되면 낮은 사람을 돕고 낮은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해서 평등하게, 우리가 자립 자족 해서 모든 나라와 세계, 우주 전체를... 우리가 그 도리를 안다면, 우주하고 직결이 돼 있고 세상 만물하고도 가설이 돼 있으니 어찌 또 그것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우주 전체가 들어져야 되고, 작은 일을 하려면 세상이 들어져야 하고, 또 더 작은 일을 하려면 국가가 들어서야 되고, 그거보다도 더 작은 일을 하려면 사회에서 해야 하고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참선이라고 하는 것도 일을 하면서도 행선이요 누워서도 와선이요 서서도 입선이요 앉아서도 좌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한다고 해서 이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는 것도 참선이니깐요. 앉아 있는 것도 좌선인요 서 있는 것도 입선인요 누워서 자는 것도 바로 와선이니 말입니다. 이 지구가 초월해서 쉼 사이 없이 돌아가고, 끝이 있다 시작이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대로 돌아가니까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도 그대로, 그걸 바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게으르게 생각할 것도 없고 편리하게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아주 유용히 그대로 생활을 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산에서만 공부하라는 법은 없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제자가 은사더러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기가 시끄럽고 복잡하니 산에 올라가서 도구를 짓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니깐 '그럼 그렇게 해라.' 선뜻 대답을 하시고 나서

"그럼 너, 꼭 혼자 해야 되겠느냐?" 하니깐 "혼자 해야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깐 "그럼 너 혼자 하려면 첫째, 오장 육부에 있는 생명들을 다 꺼내 놓고 둘째, 남이 웃을 잔 거니가 입지 말아야 하고 셋째, 남이 농사를 지은 거니가 먹지 말아야 하고 넷째, 땅을 밟지 말아야 하고 또 물을 먹지 말아야 하고 불도 쓰지 말아야 하고 바람도 쐬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게 따로 생명이 있고 따로 마음이 있고 너 이외에 모두가 탄 거니가 가서 절대로 나 무도 배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재주가 있으면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그냥 무릎을 치면서 '하! 정말 내 몸속에도 그렇게 많은 중생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모두 복잡하다고만 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회개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 아침 공양 했느냐?" 하니깐 "식기 뒤엎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건 말하자면 '벌써 밥 먹고 지나갔습니다.'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지나간 거를 물으니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나가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직 도착 안됐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어떤 차이도 거기 붙지 않고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 몸도 지구와 같이 모든 생명들을 한데 모아서 살고 있구나!' 하고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다스리는 나의 주인공이 수억억을 거치면서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어 왔으니 바로 나의 주인이로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실행해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까 부탁했죠. 집을 나간 자식이나 안되는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다 몸으로 말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잡으려고 하라고요. 마음은 돌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에다가 그렇게 입력을 시키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한다면 강도도 없어질 거고 사기도 없어질 거고 모든 게 다 깨끗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오 늘은 이만 하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6년 9월 1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 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특색은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변형 | 296쪽 | 값 13,000원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리벳 사자의 서』에 의한 죽음에서의 해탈법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죽음 기간 중 단 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범성 편역 | 신국판변형 | 144쪽 | 값 8,000원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는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울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법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있다.

● 북다북 www.buddhabook.co.kr ● 주문 (02) 3672-7181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